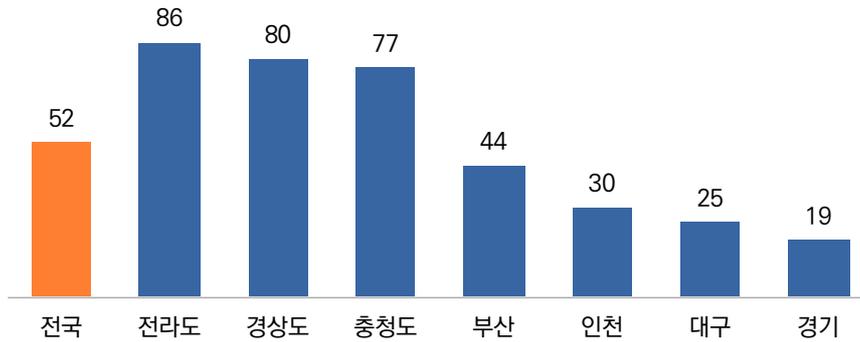




## 소멸위험 지자체, 전국 절반 넘어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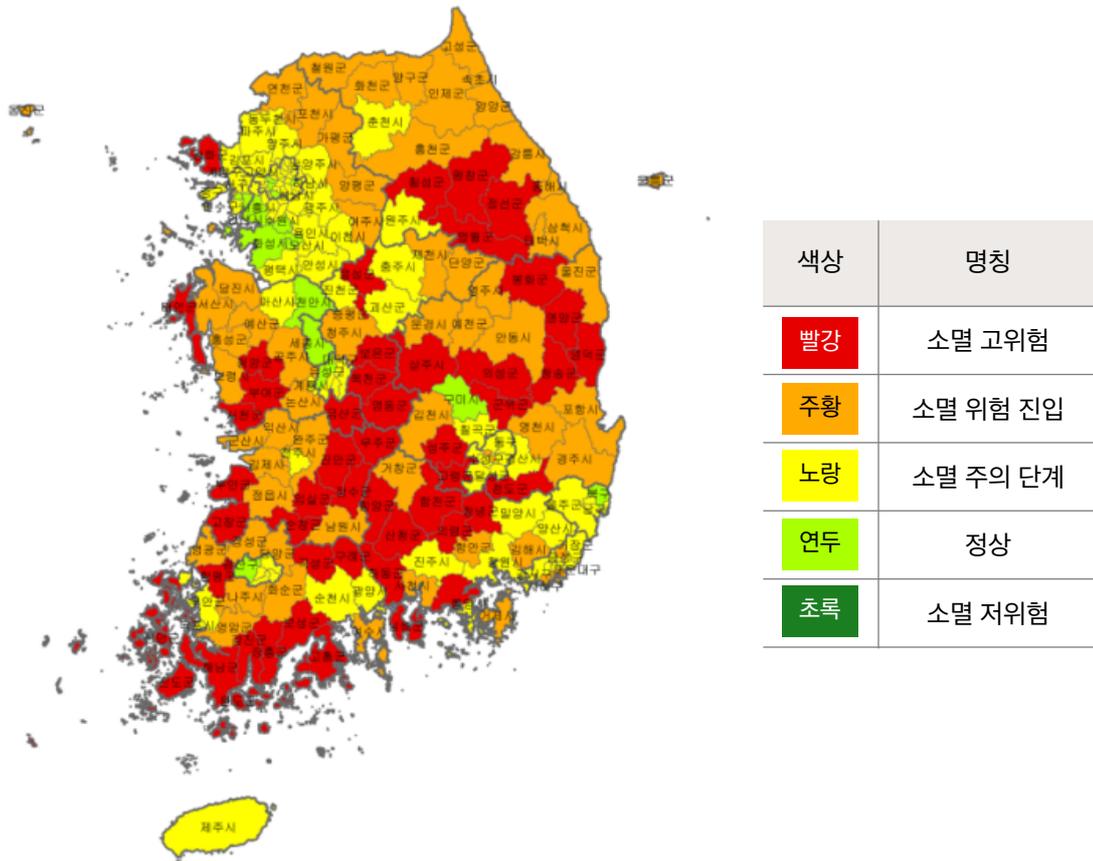
- ▶ 한국고용정보원의 '지방 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'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(소멸위험 지수는 20-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0.5 미만일 경우 '소멸위험 지역'으로 보고 있다.)
- ▶ 소멸위험 지역은 전라도(86%)와 경상도(80%)가 80%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며, 충청도가 77%로 그 뒤를 이었다. 경기·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30% 미만으로 양호하나, 인천에서도 강화/옹진군 등이 추가되면서 지방 소멸의 안전지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.

[그림] 시도별 소멸위험 지역 비중 (%)



\*자료 출처 : 한국고용정보원, 지역산업과 고용(통계로 본 지역고용\_지방 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), 2023.03.31.

[그림]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위험 현황 (2023.2)



\*자료 출처 : 한국고용정보원, 지역산업과 고용(통계로 본 지역고용\_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), 2023.03.31.